

# 화학기업, 수출 · 내수 증가 주도

1-9월 수출 8.65조원에 내수 7.53조원 증가 ... 수출비중 53% 달해

화학업종이 상장 제조기업 중 수출과 내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개별 상장기업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수출증가에서, POSCO는 내수증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.

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 제조기업 374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2010년 들어 3/4분기 까지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3.03%로 전년동기대비 0.11%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수출액은 170조3499억원, 내수는 150조9031억원으로 각각 17.5%, 17.0% 증가했다.

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전기 · 전자로 수출이 전체 매출액의 75.2%를 차지했고 운수장비(71.7%), 화학(57.2%) 등이 그 뒤를 이었다.

수출비중 상승률은 의료정밀이 112.43%로 가장 높았다.

수출과 내수 증가를 주도한 업종은 화학으로 나타났다.

화학업종 수출액은 2009년 1-9월보다 8조6504억원 늘어 전기 · 전자(5조6825억원), 운수장비(5조5331억원) 증가액을 앞질렀다.

내수 증가액도 7조5341억원 늘어 철강금속(7조1745억원), 운수장비(3조3220억원)보다 많았다.

수출 증가액 1위는 수출액이 2009년 4조6638억원에서 2010년 9조63억원으로 늘어난 하이닉스가, 내수 증가액 1위는 2009년 12조7978억원에서 2010년 15조2694억원으로 늘어난 POSCO가 차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

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1/22>